

Eli Lily, 임상시험 결과 공개 주목

자사 의약품 효능 및 안정성 데이터 공개방침 ... 환자 부작용 최소화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잇따라 주목된다.

한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 제약기업 Eli Lilly는 8월17일 자사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임상시험 결과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달러에 따르면, Eli Lilly는 과거 10년간 시행해 온 모든 임상시험 결과를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Eli Lilly는 1994년 7월 1일 이후 10여년 동안 시판된 모든 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결과 뿐만 아니라 2004년 4/4분기에 발매될 약품의 초기 임상시험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았던 약품의 연구 결과 뿐만 아니라 출시 이후 부작용 때문에 다시 진행됐던 임상시험 결과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Glaxo Smith Kline(GSK)도 2004년 6월 자사가 후원한 모든 임상시험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GSK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본사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Eli Lilly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약기업들은 유리한 임상시험결과만 공개하고 제품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은폐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정보공개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부터 우울증, 골다공증,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의사 및 환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18>